

96년

통상산업부

주요업무계획

- 통상산업부 -

○ 통상산업부는 ① 능동적인 통상활동의 전개와 무역의 확대균형 추구, ② 민관협력의 산업발전체제 정착과 산업경쟁력의 강화, ③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기반 확립 및 ④ 에너지수급의 안정과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을 주요정책 방향으로 하는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음.

○ 통상산업부는 통상·무역분야에 있어서는

- 출범 2년째를 맞는 WTO체제에 적극 대응하여 보조금 등 국내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, 타국의 이행상황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우회덤핑방지규정, 원산지규정 등 UR 후속협

상과 환경·노동기준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키로 하였으며,

- APEC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자유화 확대를 유도하고 핵심분야의 협력사업을 주도하여 우리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, 금년말 목표로 추진중이 OECD가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기로 함.
- 무역분야에서는 수출 천역불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과 문화가 체화된 상품을 중심으로 수출구조를 고도화해 나가고, 수출보험제도 등 간접수출지원제도의 확충을 통하여 무역의 확대 균형을 도모하며, 무역수지 적자해소를 위한 주요시책으로서 자본재 산업 육성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함.
- 또한 수출입 승인제도를 「원칙자유·예외승인」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수출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, 수입선다변화 품목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무역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고, 첨단기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유치 및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도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세계화를 적극 유도키로 함.

○ 산업분야에서는

-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로의 진입,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민·관협력의 산업발전 체제를 정착시키고, 『新경제』 산업발전전략을 차질없이 추진시켜 나갈 것임.
- 석유화학·반도체·발전설비 부문의 신규진입제한 철폐 등으로 산업활동전반에 대한 경쟁을 촉진하고, 절차·서류간소화 위주의 양적 규제완화 노력보다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의 근본적 개선에 노력하며,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 노력을 유도하고, 「2000년대를 향한 공업배치기본계획」을 수립하는 등 지역 균형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키로 함.
- 우리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첨단산업에 대한 수도권내 입지규제 완화와 중소기업의 입지에

로 해소 등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물류 효율화를 추진할 것임.

- 특히 96년은 「산업기술개발 5개년계획」과 「기술하부구조 확충 5개년 계획」을 추진하는 원년이 될 것이며, 기술개발 여건을 확충하기 위한 기술평가 담보제도와 기술보험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고, 산업디자인·포장진흥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.
- 96년부터 유통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므로 유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의 완화와 함께 지원제도를 제조업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임.

○ 중소기업분야에서는

-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월말까지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종전의 거시적인 정책 접근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, 현장감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그 대상도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·유통·기타제조관련 서비스업분야에 까지 확대해 갈 계획임.
- 자동차·정보화·신기술화 사업 등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사업에 2조원을 지원하고, 중소기업의 경영방식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2개 지역의 「중소기업경영애로센터」의 운영을 강화하며, 「중소기업 경영애로 종합상담회」를 순회 개최와 함께 「100PPM 품질혁신사업」도 더욱 확산시키기로 함.
-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고,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영을 연쇄도산 방지 중심으로 개편하고, 「어음보험제도」의 도입을 추진하며, 중소기업과 대기업, 금융기관간의 거래관행을 조사·공표하고 현금결제확대, 결제기간 단축 등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함.
- 또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도 95년 4,900억에서 8,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, 「중소기업 종합지원센

터」를 확대 설립하여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키로 함.

○ 에너지·자원분야에서는

- 10년 단위의 「국가에너지기본계획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에너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, 석유산업 자유화·민자발전확대 등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, 에너지 생산·수송 및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노력도 한층 강화키로 함.
- 에너지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석유, 천연가스, LPG, 전력 등 주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및 국내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,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시책을 강화하고, 고효율기기의 보급을 촉진하는 등 에너지 효율향상 대책도 적극 추진키로 함.
-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키 위해 2010년까지 계획된 15기 635만kW의 민자발전사업중 기본계획이 확정된 180만kW에 대해서는 금년 7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90만kW(LNG 2기)는 97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키로 하였으며, 97년으로 예정된 석유산업 자유화 시행에 대비하여 국내 유종간 가격구조를 국제시장 구조에 접근시키고 유통단계별 기능을 재정립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함.
-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요 탄광지역에 고원관광산업을 적극 유치하고, 탄광지역 진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함.
- 에너지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월 장·차관주재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관리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며, 가스·전기·광산 등 분야별로 종합적 안전관리체제를 정착시키고, 안전관리 투자확대를 유도하며,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함. ㉟